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5.(수) 11:00 < 3.6.(목) 조간 > 배포 2025. 3. 5.(수)

기업의 관세 애로 해결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

- 3월 5일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주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관세대응 릴레이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KOTRA(사장 강경성)와 3.5일 충북을 시작으로 강원(3.12.), 인천(3.14.) 등 전국 11개 주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서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세 대응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관세 대응 통합 상담 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KOTRA에 신설(대표번호: 1600-7119)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집중해소하고 있으며 멕시코, 캐나다, 미국,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미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진출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릴레이 관세 대응 설명회는 글로벌 관세 및 통상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대체 시장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석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미국 관세 조치 및 대체시장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며 더 나아가, 1:1 수출 애로 컨설팅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 기업들의 관세 애로 해결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수출과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및 해외 모든 현장에서 기업들의 관세 애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수출 현장의 통상 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방 구석구석을 찾아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서기관	김창완 (044-203-40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 개요**

□ 개요

○ (목적) **업종별·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대상 **미국 新정부 관세 조치** 대응력 제고

○ (주요내용) ❶통상현안 모니터링 정보, ❷유망 시장 정보, ❸비상 대응 지원 사업 정보 등을 종합 제공

□ 세부 내용

○ (시기/장소) '25년 3월~4월/ 총 11개 주요 지역

- 3월: 충북(5일), 강원(12일), 인천(14일), 울산(24일)
- 4월: 전북/경기북부(2일), 대전세종충남(3일), 광주전남(14일), 경기/부산(16일), 경남(24일)

○ (참가규모)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방기업 등 관계자 100명 내외

○ (주관/주최) 산업부/ KOTRA·수출지원 유관기관

< 공통 프로그램(안) >

연번	시간	내 용
1	20분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 및 진출 유망분야
2	20분	주목해야 할 유망시장
3	20분	KOTRA 비상대응 지원사업 (관세대응 119,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등)
4	40분	지역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5	10분	Q&A 및 1:1 수출애로 컨설팅